

# “역사 후퇴 막아달라” vs “무능한 정부 심판”…호남서 막판 총력전

민주, 뚜벅이 유세·게릴라 콘서트 국힘, 이 대표 광주·여수 지지 호소 정의·진보 “거대 양당 정치 종식”

선거일을 하루 앞둔 8일, 광주·전남에서도 여야의 막바지 최종 득표전이 뜨겁게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으로 정권 연장을, 국민의힘 등 야권은 정부 심판으로 정권을 교체하며 막판 유세전을 벌였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심상정 후보에 투표해달라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조오선 국회의원이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직접 만나 투표 독려와 공약을 소개하는 ‘뚜벅이 유세’를 벌였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양동 골목을 돌며 ‘골목에도 이재명이 왔어요’라는 골목 탐방 유세를 펼치며 유권자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광주 기인치 선대위 청년 유세단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직장인을 위한 상무지구 게릴라 콘서트를 벌였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광주공원에서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운동원 전원 이 참여해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공식 선거운동을 정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시민



광주공원에서 이재명 지지 호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전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운동원들이 광주공원에서 정리유세를 하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길, 과거로 후퇴할지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다”며 “위대한 광주 시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도권을 향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이재명의 유능함, 이재명의 통합의 정치를 꼭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

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더하기도 했다.

안철수 지지 철회자 모임 200명은 지난 3일 안 전 후보가 윤 후보와 단일화를 하자, 이에 실망한 지지자들 중심으로 SNS를 통해 모여 이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이날 광주를 방문해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대학생 유세단과 함께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대 유세를 통해 “대한민국



이준석, 광주서 지원 유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거일 하루 전인 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윤석열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의 고질적인 지역 분열과 세대 간 분열을 없앨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쪽 땅을 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남이 발전하는 것이 영남이 발전하는 것이고 영남이 발전하는 것이 호남이 발전하는 것이다”며 “더이상 갈라치기로 국민들을 찢어 놓을 수는 없다”면서 지역갈등 해소를 강

조했다.

이어 “광주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가 싹트고 있다”면서 “여러분이(청년 세대가) 노력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청년 표심에 구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와 광주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정당들도 양당 체제 극복을 내세우며 공식선거운동 막바지 진보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비호감·네거티브 대선...누가 돼도 ‘협치’ ‘통합’ 과제로

李·尹 통합정부 한목소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20대 대선이 막판까지 박빙 승부로 펼쳐지면서 여야 간 대장동 개발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특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협치’와 ‘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최종 득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선 이후 정국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부실 관리 논란까지 나온 만큼, 선거 결과가 박빙일 경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정가에 따르면 누가 당선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상황을 봉합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

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당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에도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보좌했다는 주장이 담긴 ‘김만배 녹취록’ 파일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선거 기간 내내 서로를 ‘무자각 후보’라고 주장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진영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나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이력 논란 등을 놓고도 날 선 발언들이 오갔다.

선거 막판에는 윤 후보가 현 정부와 이 후보, 민주당을 싸잡아 ‘이념 팔이’로 날선 공격을 이어가면서 양 측의 갈등의 골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두 후보 모두 ‘통합’과 ‘협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통합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는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후보는 국내 정치가 소모적·대결적인 승자독식 구조로 가는 원인을 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로 지목하고 정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개헌 등 추진을 위해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사가 피력해왔다.

이에 대선 직후 당장 당면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정치 개혁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후보 역시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인사에 있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를 하며 밝힌 ‘국민통합정부’ 구상도 이런 생각과 맞닿아 있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단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저희 두 사람이 함께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라고 밝혔다.

대선 직후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 국민의힘의 외연을 넓히고 민주당의 합리적인 인사들과도 과감하게 협치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언론노조, ‘민주당 전위대’ 발언 윤석열 고소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언론노조를 두고 ‘민주당 전위대’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문제적 발언은 헌법의 지위를 부정하고 언론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결사를 인정하지 않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1만5000 조합원을 대표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지역 유세에서 “민주당

정권이 강성노조 전위대를 앞세워 갖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면서 “이것이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전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누구보다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과 항의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집권도 하기 전에 비판언론을 말살하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자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송영길 “민주 미워서 윤석열 지지 국민의 목소리 새겨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저는 망치로 뒤통수 공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치명적 부위를 비껴났고 뇌출혈도 없어 오늘 퇴원해 마지막 유세에 동참하려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면서 “폭력과 혐오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낮 12시 5분께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둔기 피습을 당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정성을 다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고 응답하도록 하겠다”면서 “저희가 미워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들겠다”고 적었다. 이어 “장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상대방을 서로 악마화해 공격하고 헐뜯는 정치를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손해보험협회**

#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